

# 산사랑과 출판사랑은 하나

## 출판계의 준령 '출판인 산악회'

출판계에서 유난히 토요일 오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출판사 대표이자 일급 바위꾼인 '출판인 산악회' (회장 허창성) 회원이 그들이다.

개인적으로 산을 찾던 출판인들이 자연스럽게 산악회를 꾸려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베테랑 산악인 허창성 평화출판사 대표가 팔을 걷고 나섰다. '글'과 '책'에서 벗어나 '흙'과 '바위'에서 친교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1981년에 발족한 이후 올해로 창립 17년째를 맞는다. 정기산행만도 총713회. 회원들의 출판연륜과 인생연륜에 육박하는 횡수이다.

### 자일공동체의 바위꾼들

초창기 멤버는 허창성 회장을 비롯하여 이기웅(열화당), 윤형두(범우사), 김주목(대광서림), 임만규(동화출판사), 배효선(법문사), 유이근(세일사) 사장 등 서울지역 출판인 20명이었다. 초창기의 도보산행에서 암벽등반으로 산행의 성격이 변했다. 1987년부터는 김주목 사장이 주축이 되었던 '과학기술출판인 산악회'와 결합하여 세를 불렀다.

현재는 초창기 멤버 외에 김정태(삼호출판사), 김태진(다섯수레), 김현표(미진사), 김형재(도서산업사), 문형진(세진사), 박용(세화), 신동설(가다리), 안항원(건설문화사), 오준일(건우사), 유광중(한국이공학사), 이부남(다다미디어), 이상대(알파서림), 이수길(대림), 이수용(수문출판사), 이정일(일진사), 이종소(은하출판사), 이종춘(성안당) 등 30명 안팎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정일(일

토요일마다 산길에 매혹되고

바위맛을 알아버린 출판인들이

자일에 몸을 지탱해

단단한 바위의 굴곡을

오른다. 순발력과 체력보다는

독심과 지구력으로 오르는

암벽등반은 곧 외길 출판인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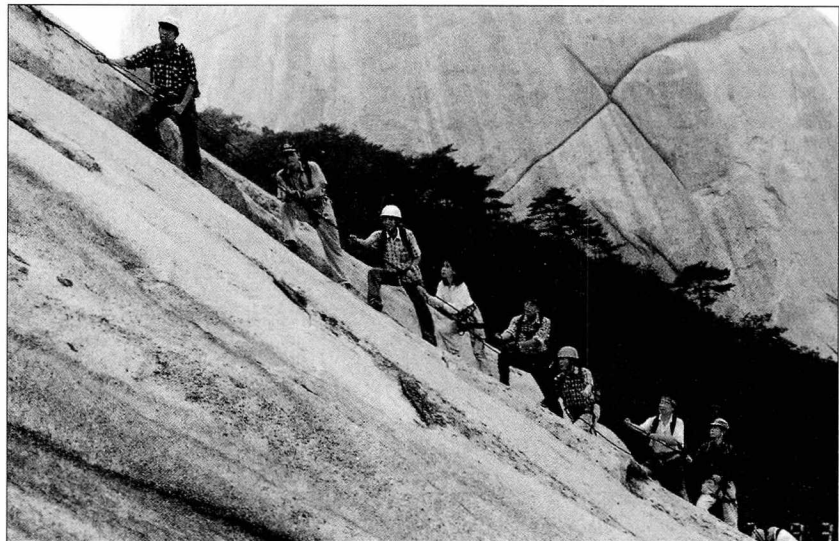
축소판이다.

진사) 사장이 총무로서 회계와 연락을 맡고 있다. 나이와 출판분야가 제각각이지만 회원들간의 유대는 어느 모임 못지 않다. '자일공동체'의 위력 때문일 것이다.

명목상은 출판사 대표들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출판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과정에 충실한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다.

근무를 마친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북한산이나 도봉산의 암벽 아래서 자일을 묶는다. 산행중에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출판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산해서는 우이동에서 삼겹살에 소주로 깔깔한 산바람을 쐬어낸다. 매년 1, 2월 경에는 시산제(始山祭)도 지낸다. 1년 동안의 무사산행을 위해 산산령에게 너물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산행중에 큰 사고가 없었다.

출판업 못지 않게 산행에서도 이들은 최



암벽을 오르며 출판의 동지애적 유대를 다지는 '출판인 산악회' 회원들.

고봉을 꿈꾼다. 91년부터 국내산행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해외원정을 시작했다. 첫째 해에는 백두산(2744m)에 올랐다. 92년 대만 옥산(3997m), 93년 일본 후지산(3776m), 94년 말레이시아 키나발루(4101m), 95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5895m) 등도 차례차례 등장했다. 올 겨울에는 뉴질랜드의 쿡마운틴으로 원정산행할 계획이다.

### 정기산행·시산제·해외원정 등 활동

책 만드는 일이 본업이므로 산행의 경험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허창성 회장은 오대륙 최고봉을 정복한 나오미의 모험기인 《돌아오지 않는 봄》을 엮었다. 범우사 윤형두 사장은 킬리만자로 원정을 다녀온 후 《잠보 잠보 안녕》이라는 여행기를 출간했다.

산사랑이 출판의 성과로 이어진 사례이다.

허창성 회장은 "산행은 육체적인 자기연마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도행위이다. 암벽을 오를 때 온갖 잡념을 버리고 바위의 물리적 조건에 맞추어서 운신해야 하듯이, 출판도 집중력과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출판인 산악회의 등산·출판철학을 밝힌다.

앞으로 2, 30대 젊은 출판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출판계 원로들과 함께 자일을 짊어지고 출판의 큰 산을 같이 오를 후계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정일 총무는 "출판을 하는 한 산행도 계속할 것이다. 출판과 등산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출판의 준령이 더 높고 길게 뻗어나갈 것을 예감하게 한다. — 박천홍 기자

### 존 스튜어트 밀:생애와 사상

W. 토머스 지음/허남결 옮김/192면/6,500원

《자유론》의 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학문을 날카로운 필치로 요약·소개하고 있는 밀 입문서로 수많은 문헌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밀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짚어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로렌츠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20세기에 출발한 철학의 한 분과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모든 입장을 저자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 인간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이다.

### 중국 도가(道家)의 음악사상

한홍섭 지음/304면/10,000원

서광사의 철학박사학위논문시리즈 제13권인 이 책은 무위적인 자연음(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이야말로 음악음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도가의 음악사상을 유가의 음악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의와 특징을 부각시켰다.

###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B.오온 지음/서상복 옮김/283면/9,000원

이 책은 근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그 인식 이론들이 현대의 인식론에 생생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식론’이 어떻게 존재론, 형이상학, 윤리학과 서로 관련을 맺는지도 알 수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